

가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7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239천 km ²	G D P	262 억 달러(2009년)
인구	23.8 백만명(2009년)	1 인 당 G D P	1,098 달러(2009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edi (GHC)
대외정책	친서방중립	환율(달러당)	1.41(2009년)

- 아프리카 서부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가나는 한반도의 약 1.1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2,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르키나파소(북), 토고(동), 코트디부아르(서)와 접경하고 있음.
- 세계 2위의 코코아 생산국이자 아프리카 2위의 금 생산국으로 광물, 임산, 수산자원도 풍부하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임.
- 1981년에 롤링스(Rawlings)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정당 활동을 금지시켰으나, 1992년에 다당제를 도입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이후 2000년 12월에 대선에서 신애국당(NEw Patriotic Party)의 쿠푸어(Kufuor)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 2008년 12월 대선에서는 국민민주회의(National Democratic Congress)의 밀스(Mills)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8년간의 신애국당 지배체제가 종식되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7.1	6.5	8.4	4.0	7.7
재정수지/GDP	-4.7	-5.6	-8.5	-5.8	-7.3
소비자물가상승률	11.7	12.7	18.1	16.0	8.6

자료: IMF, EIU

□ 2010년 서비스 산업의 호조로 경제성장 회복세

- 가나는 2006~08년 중 금 등 귀금속을 중심으로 한 광업 부문과 통신·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7.3%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경작면적 증가 등에 따른 농업 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며 경제성장률은 4.0%로 둔화되었음.
- 2010년에는 정보통신 등 서비스 산업의 호조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며 경제성장률이 7.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는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세 행정, 보조금 지급, 외채 부담 등으로 인해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08년에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대회 개최(1월) 및 대통령 선거(12월) 등과 관련하여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가 GDP의 8.5%까지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정부의 세수기반 확충 및 지출 축소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5.8%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 국내외 차입금 이자 등 지출 증가로 동 비율이 7.3%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한자리수로 하락

- 2008년에는 수입관세 철폐,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고유가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의 12.7%에서 18.1%로 급등하였음.
- 2009년에는 긴축 재정정책,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비식료품 부문의 가격 상승, 상반기 중 세디(Cedi)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전기·수도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농작물 작황에 따른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 정부의 긴축정책 강화, 세디화의 안정세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6%로 대폭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구조·정책

□ 제조업 기반 취약

-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 2010년 기준 농업 33.7%, 서비스업 41.6%인 반면, 제조업은 24.7% 수준에 불과하여 가전제품 등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 개도국형 시장구조임.
- 광물자원이 총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금 수출이 90%를 차지하는 등 1차 산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 금 시세 등에 따라 국가경제가 크게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가나는 1957년 독립 당시만 해도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 도로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였으나, 이후 도로, 철도, 통신 시스템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인프라가 낙후되면서 도로 교통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는 등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08년 1월에 개최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나, 별다른 개선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2010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가나는 전체 169개국 중 130위에 그쳤으며, 보건, 교육 등 사회 환경 전반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2010년 말 원유 생산 개시

- 2007년 6월에 영국의 석유회사인 Tullow Oil이 가나의 주빌리(Jubilee) 해역에서 이 나라 최초의 해상 유전(확인매장량 20억 배럴)을 발견하면서 관심이 고조되었음.
- 주빌리 해상유전은 2010년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2011년 산유량은 약 12만 배럴/일로 예상됨.
 - 2011년 4월 의회를 통과한 석유수입관리법안은 석유수입과 관련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석유수입 관리절차를 강고하고 있음. 정부는 동 자금을 이용해 재정 적자를 보전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여타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임.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가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제 2의 금 생산국임. 금 생산은 6대 Belt 지역(Asanti, Sefwi, Kibi-Wineba, Bui, Bole, Wa-Lawra)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망간 등도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채굴작업이 최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음.

□ 아프리카 국가 중 양호한 기업환경

- 가나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총 183개국 중 67위로 비교적 양호한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2006~07년에는 세계 Top 10 Best Reformer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부동산 등기, 투자자 보호, 계약 실행 등의 부문이 양호한 편이며, 금융 부문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건설허가, 사업폐쇄 등의 부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IMF의 지원 아래 착실한 구조조정 시행

- 2003년 4월, IMF와 3개년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원조협정을 체결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은행 등 공공 분야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IMF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2009년 7월에는 3개년 PRGF 원조협정을 새로이 체결(6억 달러 규모) 하고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0~13년, 중기개발계획 시행

- 정부는 2002년 이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원조국과 협의를 거쳐 가나 빈곤감축전략(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 GPRS)을 추진하여 왔음.
- GPRS I(2003~05년), GPRS II(2006~09년)에 이어 정부는 2010~13년의 중기개발계획(Ghana Shared Growth and Development Agenda: GSGDA)을 시행 중임.
- GPRS I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빈곤감축, GPRS II는 부의 창출 및 빈곤 감축 지원을 위한 경제성장 촉진에 중점을 두었음.
- GSGD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축을 통해 가나가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 및 중소득국가(Middle Income Status)의 지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GSGDA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 (2)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 (3) 농업 현대화 및 자연자원 관리 등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1,043	-2,151	-3,543	-1,198	-2,313
경 상 수 지 / G D P	-8.7	-8.7	-12.4	-4.6	-7.2
상 품 수 지	-3,027	-3,894	-4,999	-2,207	-3,143
수 출	3,727	4,172	5,270	5,840	7,693
수 입	6,754	8,066	10,269	8,046	10,706
외 환 보 유 액	2,268	2,808	2,028	3,165	3,950
총 외 채 잔 액	3,188	4,463	4,978	5,427	6,759
총 외 채 잔 액 / GDP	26.6	18.1	17.3	22.0	20.9
D . S . R .	5.0	2.9	3.2	3.0	2.4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기조

- 2008년에는 금, 코코아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국제 유가 상승 및 자본재 수입 급증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는 50억 달러에 육박하였음. 이에 따라 해외 거주자의 국내 송금 등에 따른 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의 22억 달러(GDP의 8.7%)에서 35억 달러(GDP의 12.4%)로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 유가 약세 및 식료품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 적자가 22억 달러로 전년보다 대폭 감소하였음. 상품수지 적자 축소 및 이전수지 흑자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도 GDP의 4.6%인 12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2010년에는 금, 코코아 등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7.2%인 2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증가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말에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31.7억 달러로 늘어났고 2010년 말에는 47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상환능력 개선

- 총 외채규모가 200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80%에 육박하였으나, 2004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의 Completion Point(채무탕감 자격 부여 단계)를 달성하고 2006년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프로그램에 의해 대규모 채무탕감을 받은 바 있음.
- D.S.R.이 2006년 이후 5% 이하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외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6년 말 26.6%에서 2010년 말 20.9%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및 사회 안정

□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 불안 완화

- 195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다수의 쿠데타(5회)와 정권교체(9회)를 겪는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음. 1981년 롤링스(Rawlings)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정당 활동을 금지시켰으나, 1992년에 다당제를 도입하였음.
- 롤링스는 1992년 및 1996년 대선에서 승리하였으나 헌법에 의해 2000년 3선은 금지됨. 2000년 12월 대선에서 신애국당(New Patriotic Party: NPP)의 쿠푸어(Kufuor) 대통령이 국민민주회의(National Democratic Congress: NDC)의 밀스(Mills)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민주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음. 쿠푸어 대통령은 2004년에도 재선되어 8년간 안정적 통치체제를 유지 하였으나, 헌법의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에 따라 2008년 12월 퇴임하였음.

□ 구정권의 부정부패 척결 수사 등 여야간 정치적 갈등 우려

- 2008년 12월 대선에서 NDC의 밀스 후보가 NPP의 아도(Addo)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되었으며, 총선에서도 여당인 NDC가 총 230석 중 115석을 차지하면서 8년간의 NPP 체제가 종식되었음.
- 향후 가나의 정치적 향방은 여당인 NDC가 NPP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 현재 NDC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하에 NPP 소속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 정치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2012년 대선 후보 선출 레이스 시작

- 2010년 9월에 야당인 NPP는 2008년 대선에서 패배하였던 아도(Addo)를 2012년 12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로 다시 선출하였음. 반면, 여당인 NDC 내에서는 현 대통령에 반대하는 분파가 형성되었으며, 전 대통령 롤링스의 처(妻) 당내 경선 출마설, 현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신뢰 약화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선 후보 선출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종족 간의 마찰 등 사회 불안 요인 잠재

- 2008년 12월 대선 기간에 NDC와 NPP의 지지자들이 각자 승리를 주장 하며 일부 도시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에는 정치집단 간의 마찰이 다소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1월 초에 정부가 디젤 및 가솔린 가격을 30% 인상하자 수도 아크라(Accra)에서 1천명 이상의 시민이 항의 시위를 벌였음. 그러나 시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으며, 대중의 폭 넓은 지지를 모으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가나는 Akan, Mole-Dagbani, Ewe 등 8개 주요 종족으로 구성되며, 종족간 마찰은 내란이나 전쟁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일부 지역

에서 이따금 발생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불안 요인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국제 관계

□ 서방국가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

- 롤링스 대통령 집권기인 8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조·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국가와 적극 협력해 왔음. 미국과는 쿠푸어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에 5억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공여 받는 등 관계를 강화해 왔음.
- 최근에는 인프라 건설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대규모 양허성차관을 도입하면서, 대외관계의 중심이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역 내 외교적 영향력 유지

- 쿠푸어 대통령이 2003~04년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가나는 나이지리아와 함께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변국인 토고, 베냉, 코트디부아르 등과의 정치·경제 교류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쿠푸어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AU)의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AU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왔음.
 - 코트디부아르와의 해양 경계선 부근에서 상당량의 석유가 발견되어 코트디부아르와의 해양 국경 분쟁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4월 가나 의회는 가나국경위원회(Ghana Boundary Commission)를 설치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 관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 관	종 전 등 급	현 행 등 급
OECD	6등급(2009. 10)	6등급(2010. 10)
S&P	B+(2009. 3)	B(2010. 8)
Fitch	B+(2009. 3)	B+(2010. 9)

- S&P는 석유수입관리법안 통과와 지연 및 재정수지의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2010년 8월에 가나의 외화표시 장기채권에 대한 등급을 B+에서 B로 하향조정하였음.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외채 일부가 연체 중이나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04년 7월 HIPC Completion Point 달성 및 2006년 MDRI 프로그램에 의해 대규모 채무탕감을 받은 바 있음.
- OECD 회원국 ECA 앞으로 2010년 6월말 기준 단기외채의 0.3%, 중장기외채의 1.7%를 연체 중임.
 - 단기 외채잔액 76.5백만 달러 (연체잔액 0.2백만 달러)
 - 중장기외채잔액 1,964.9백만 달러 (연체잔액 34.1백만 달러)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가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주요 품목
수 출	146	195	154	213	자동차, 합성수지
수 입	18	16	17	21	코코아

* 자료: 한국무역통계

- 국교 수립 : 1977년 11월 14일 (북한과는 1964. 12. 28)
- 주요 협정 : 문화협정('87), 경제기술무역협정('90),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03)
- 2010년 교역규모는 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8% 증가
 - 2010년 우리나라의 대 가나 수출은 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고, 수입은 2,100만 달러로 28.9% 증가하였음.
 - 2010년 8월 초 가나 의회는 향후 5년간 20만채 주택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 건설기업 STX Korea와의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승인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코코아 등임.
- 해외직접투자(2011년 3월 말 누계, 총 투자 기준): 27건, 53,687천 달러
 - 2011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나에 대한 직접투자금액(누계 기준)은 53,687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투자가 39,816천 달러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가나는 금광석 생산 등 광업부문과 통신·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견실한 성장 등에 힘입어 2006~08년에 연평균 7.3%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이 4.0%로 둔화되었음. 2010년에는 서비스산업의 호조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며 경제성장률이 7.7%로 추정되는 등 2009년을 제외하면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2011년에는 주빌리 유전의 원유 생산 및 수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9.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년 이후 연간 두자리수를 유지하다가 2010년 식료품 가격 안정세 등으로 한자리수(8.6%)로 하락하였으나, 2011년에는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다시 두자리수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수지는 2009년 이후 세수기반 확충 노력과 주요 수출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정 수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지 적자 기조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으나,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음. 외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6년말 26.6%에서 2010년말 20.9%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D.S.R.이 2006년 이후 5% 이하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낙후된 사회 인프라 등이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나, 금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환경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원유 생산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으로는 현 밀스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 국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2012년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여당인 국민민주당의 내분 및 야당인 신애국당과의 정치적 갈등 등이 불안요소로 남아 있음.

책임조사역 김찬수(☎02-3779-5727)

E-mail : avik@koreaexim.go.kr

